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심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2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문제는 거부불안, 회피분산적 양식과는 정적(+), 수용기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능동적 양식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추구양식 뿐 아니라 능동적 양식도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적 양식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정서를 통해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부민감성은 성격적 요인으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정서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생들의 고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에게 개입 혹은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a voluntary participation survey at S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which are psychological mechanisms known to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22 college students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problems have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fatherly anxiety, avoidance, and dispersive styles, and a negative (-) correlation with acceptance expectations,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active style. Second, rejection anxiety exhibi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not only in the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but also in the active style. Receptive expectancy influences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the active mode.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for interventions or the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education due to the in-depth analysis of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concerns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 Rejection Sensitivity, Interpersonal Problems, Emotional Clarity, Emotional Regulation, College Student

본 논문은 2022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

email: 13636@shinhan.ac.kr

Received September 22,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24,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1. 서론

대인관계란 두 명 이상이 역동적·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점으로, 교류와 관계적인 차원이 부각된 개념이다. 사회관계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대학생 시기에는 특히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해진다. Erikson[1]은 대학생에 해당하는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로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취업을 위해 성적 외에도 인턴, 팀 프로젝트 등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

한국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부족하다[3].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대인관계 경험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대인관계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4].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율성·유능감·관계적 욕구 충족 문제[5], 삶의 안녕감[6], 의사소통 능력[7]의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을 사랑받고 수용 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8].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상담지원현황’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의 상담 주제 2순위가 대인관계 문제가 21.5%로 나타났으며[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대학생의 심리건강 특성 및 대학생활 적응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의 61.1%가 대인관계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는 대학생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11].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 발달시기에 알맞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게 되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춘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낮출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12,13].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을 증진시킨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14]. 이외에도 정서조절양식 또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15,16]. 이렇게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은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검증된 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한 반응을 하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반사적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고[17], 대인관계에서 거절 경험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18]. 이를 Feldman과 Downey[19]는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모호하거나 사소한 단서도 예민하게 거부로 지각하며, 거부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성이다[20].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미리 예상하여 불확실한 상황도 거부로 이해함으로써 자기침묵과 같은 회피 대처 전략을 구사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등 부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21]. 상대방의 의도와 무관하게 거부로 인지하는 인지적 과정은 대인관계에서 자동적으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유발한다[22]. 이러한 부적응적인 반응들은 대인관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23]. 반면, 낮은 거부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수용기대의 속성을 가진다[20]. 타인에게 수용기대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려는 태도를 보인다[23].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정서에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24]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거부민감성의 감소는 새로운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성격적인 변이이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다루는 것에 비해 상담적으로 개입하기 더 어렵고, 상담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변수라고 할 수 있다[25].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은 각각 정서를 인식하는 것과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변수이다. 이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하는 것은 정서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 대부분의 대인관계에는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인식명확성이란 자기 내부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구별해내는 능력이다[26].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할수록 부정적 정서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서표현과 높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제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

을 수 있다[26,27].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낌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킨다[28]. 또한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해내고 상황에 맞는 정서를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다[26].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구사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28,29]. Flack, Cavallaro, Laird, & Miller의 연구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 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였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31], 적절한 자기개방과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2].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예측은 자연스러운 정서처리 과정을 방해하거나[33], 정서표현을 억제함으로써 발생하였던 정서의 종류와 성격을 망각하게 된다[34]. 반면,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정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35].

정서조절양식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36]. 정서조절은 정서를 다루는 과정이고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유쾌한 정서는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는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37]. 인간은 다양한 정서경험과 조절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서를 적응적으로 잘 조절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줄 수 있게 된다. Gotmann과 Mettetal은 정서조절에 따라 대인관계의 융통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8]. 따라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억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즉, 거부되어지는 상황에 예민할수록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

는 방법이 부족함을 나타내며[40], 인지적인 해결보다는 반사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높다[41].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양식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정서를 경험하고 조절해 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특히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자신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서인식명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2]. 자신이 경험한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연의 연구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적절하게 스스로의 정서에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정서조절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43]. 효율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지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지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44].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따르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거부민감성뿐만 아니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신의 심리적 문제로서의 거부민감성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정서를 경험하는 크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관계에서 개입이 가능한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서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대학생에 대한 구체적 개입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는 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28-32]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의 관계 가운데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상담 장면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순차적 매개 모형은 예측 변인이 각 매개 변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각 매개 변인들 간의 영향력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기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45].

가설1.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2.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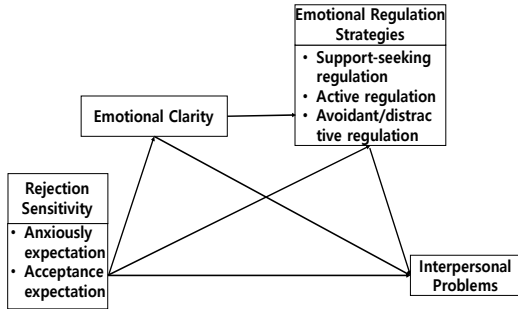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의 관계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측정도구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과 요청 시 자료를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으로 참여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명(26.2%), 여자 90명(73.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38명(31.1%), 2학년 33명(27.0%), 3학년 32명(26.2%), 4학년 19명(15.6%)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24명(19.7%), 글로벌비즈니스대학 25(20.5%), 바이오생태보건대학 39명(32.0%), 과학기술융합대학 13명(10.7%), 디자인예술대학 17명(13.9%), 간호대학 4(3.3%)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der	Male	32	26.2
	Female	90	73.8
Grade	1st grade	38	31.1
	2nd grade	33	27.0
	3rd grade	32	26.2
	4th grade	19	15.6
Major	Social Sciences	24	19.7
	Global Business	25	20.5
	Biotechnology and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39	32.0
	Convergence	13	10.7
	Design and Art	17	13.9
	Nursing	4	3.3

2.2 연구도구

2.2.1 거부민감성

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 Downey & Feldman[20]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복동[46]이 번안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거부불안과 수용기대라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상황에 따라 불안인지 기대인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는 6점 척도로 설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양극단 쪽으로 응답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편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47]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부불안 0.945, 수용기대 0.912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9]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30]가 번역하여 타당화까지 진행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문항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서인식 명확성 11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일상에서 스스로 정서를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875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3 정서조절 양식

정서조절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석빈[48]이 개발한 척도를 임전옥[49]이 수정하여 보완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척도는 총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의 하위요소의 신뢰도는 능동적 양식 0.846, 회피분산적 양식 0.825, 지지추구적 양식 0.896으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70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4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외[50]가 개발하고 홍상환 등[51]이 한국 성인과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단축화하고 타당화하여 만들어진 대인관계 문제 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922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 1번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2번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52]의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다양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 있으며, 특히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오차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와 Process macro ver. 4.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및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거부민감성과 매개변수인 정서조절양식은 하위요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6은 3단계로 분석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1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1이 매개변수2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매개변수1, 매개변수2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다음, 각각의 경로에 대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3.1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증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53].

Table 2. Key variable normality test

Variables	M	SD	Skew.	Kurt.
Anxiously expectation	2.31	0.80	0.48	-0.17
Acceptance expectation	3.70	0.55	0.11	-0.43
Emotional clarity	3.71	0.57	-0.30	-0.22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3.32	0.57	-0.36	-0.27
Support-seeking style	3.68	0.89	-0.75	0.31
Active style	3.43	0.75	-0.44	-0.24
Avoidant/distractive style	3.10	0.80	0.09	-0.61
Interpersonal problems	2.31	0.52	-0.14	-0.27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는 거부불안($r=.662$), 회피분산적 양식($r=.256$)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용기대($r=-.605$), 정서인식명확성($r=-.546$), 정서조절양식($r=-.464$), 지지추구적 양식($r=-.290$), 능동적 양식($r=-.457$)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nE	AcE	EC	ERS	SSS	AS	ADS	IP
AnE	1							
AcE	-.699***	1						
EC	-.435***	.494***	1					
ERS	-.312***	.350***	.437***	1				
SSS	-.105	.230*	.285**	.716***	1			
AS	-.400***	.367***	.424***	.713***	.326***	1		
ADS	.184*	-.164	-.236**	-.694***	-.169	-.264**	1	
IP	.662***	-.605***	-.546***	-.464***	-.290**	-.457***	.256**	1

AnE: Anxiously expectation, AcE: Acceptance expectation, EC: Emotional clarity, 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SSS: Support-seeking style, AS: Active style, ADS: Avoidant/distractive style, IP: Interpersonal problems

3.3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3.3.1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372, p<.0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20, p<.001$), 정서인식명확성($B=-.219, p<.01$)과 정서조절양식($B=-.183, p<.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4~.046)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4.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nxiously expectation	-.313	-5.291***	27.998*** (.189)	.022~.128
IV+M1→M2 Anxiously expectation	-.108	-1.661	15.745*** (.209)	-.006~.060
Emotional clarity	.372	4.104***		
IV+M1+M2→DV Anxiously expectation	.320	7.140***	48.789*** (.554)	.004~.046
Emotional clarity	-.219	-3.325**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183	-2.944**		

* $p<.05$, ** $p<.01$, *** $p<.001$

AE: Anxiously expect, IP: Interpersonal problems

3.3.2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350, p<.001$). 3단계에서 수용기대($B=-.379, p<.001$), 정서인식명확성($B=-.229, p<.01$), 정서조절양식($B=-.190, p<.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76~-.005)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5.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 Control Style

Step	B	t	F(R ²)	95% CI
IV→M1 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38.760*** (.244)	-.214~-.036
IV+M1→M2 Acceptance expectation	.183	1.894	16.258*** (.215)	-.093~.003
Emotional clarity	.350	3.740***		
IV+M1+M2→DV Acceptance expectation	-.379	-5.246***	36.555*** (.482)	-.076~-.005
Emotional clarity	-.229	-3.145**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190	-2.819**		

3.3.3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지지추구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457, p<.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42, p<.001$), 정서인식명확성($B=-.245, p<.001$)과 지지추구적 양식($B=-.092, p<.05$)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0~.031)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6.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nxiously expectation	-.313	-5.291***	27.998*** (.189)	.032~.130
IV+M1→M2 Anxiously expectation	.025	0.232	5.277** (.082)	-.033~.021
Emotional clarity	.457	3.019**		
IV+M1+M2→DV Anxiously expectation	.342	7.636***	46.847*** (.544)	.000~.031
Emotional clarity	-.245	-3.795***		
Support-seeking style	-.092	-2.424*		

3.3.4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지지추구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351, p<.05$). 3단계에서 수용기대($B=-.402, p<.001$)와 정서인식명확성($B=-.274, p<.0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36~.006)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38.760*** (.244)	-.235~-.066
IV+M1→M2 Acceptance expectation	.189	1.174	5.998* (.092)	-.049~.012
Emotional clarity	.351	2.253*		
IV+M1+M2→DV Acceptance expectation	-.402	-5.489***	33.075*** (.457)	-.036~.006
Emotional clarity	-.274	-3.807***		
Support-seeking style	-.061	-1.474		

3.3.5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B=-.251, p<.01$), 정서인식명확성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406, p<.0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15, p<.001$), 정서인식명확성($B=-.246, p<.001$)과 능동적 양식($B=-.101, p<.05$)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1~.032)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8.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ctive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nxiously expectation	-.313	-5.291***	27.998*** (.189)	.033~.137
IV+M1→M2 Anxiously expectation	-.251	-2.988**	18.522*** (.237)	.002~.061
Emotional clarity	.406	3.475***		
IV+M1+M2→DV Anxiously expectation	.315	6.724***	45.705*** (.538)	.001~.032
Emotional clarity	-.246	-3.737***		
Active style	-.101	-2.058*		

3.3.6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수용기대($B=.283, p<.05$)와 정서인식명확성($B=.422, p<.001$)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수용기대($B=-.375, p<.001$), 정서인식명확성($B=-.238, p<.01$), 능동적 양식($B=-.136, p<.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69~-.004)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9.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ctive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38.760*** (.244)	-.211~-.043
IV+M1→M2 Acceptance expectation	.283	2.229*	16.110*** (.213)	-.095~-.001
Emotional clarity	.422	3.437***		
IV+M1+M2→DV Acceptance expectation	-.375	-5.146***	35.945*** (.478)	-.069~-.004
Emotional clarity	-.238	-3.285**		
Active style	-.136	-2.634**		

3.3.7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거부불안과 정서인식명확성은 회피분산적 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334, p<.001$),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271, p<.001$).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03~.017)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0.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voidance dispersive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nxiously expectation	-.313	-5.291***	27.998*** (.189)	.040~.143
IV+M1→M2 Anxiously expectation	.101	1.021	4.069* (.064)	-.008~.032
Emotional clarity	-.268	-1.955		
IV+M1+M2→DV Anxiously expectation	.334	7.302***	44.095*** (.529)	-.003~.017
Emotional clarity	-.271	-4.218***		
Avoidant/distractive style	.059	1.386		

3.3.8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회피분산적 양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286, p<.05$). 3단계에서 수용기대($B=-.407, p<.001$)와 정서인식명확성($B=-.274, p<.0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35~.004)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1.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voidance Dispersive Style

Step	B	t	F(R2)	95% CI
IV→M1 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38.760*** (.244)	-.233~-.064
IV+M1→M2 Acceptance expectation	-.090	-0.610	3.715* (.059)	-.046~.018
Emotional clarity	-.286	-2.008*		
IV+M1+M2→DV Acceptance expectation	-.407	-5.591***	33.350*** (.459)	-.035~.004
Emotional clarity	-.274	-3.837***		
Avoidant/distractive style	.073	1.62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사이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거부민감성의 거부불안, 수용기대 그리고 정서조절양식의 인지추구적 양식,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정서조절양식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이나 교육현장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심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의 관계와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22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소들,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양식의 하위요소들과 대인관계 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문제는 거부불안($r=.662$), 회피분산적 양식($r=.256$)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용기대($r=-.605$), 정서인식명확성($r=-.546$), 정서조절양식($r=-.464$), 인지추구적 양식($r=-.290$), 능동적 양식($r=-.457$)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피분산적 양식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 분산적 양식이 자신의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에 적극대처하기 보다 회피 혹은 자신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정서조절

양식으로 다른 양식과 달리 부정적인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서조절양식 중 능동적 양식은 부정 정서 조절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지추구적 양식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말함으로 인해 조인을 얻고 그들을 통해 감정적 지지를 받음으로 부정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피분산적 양식이 높으면 대인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지추구적 양식과 능동적 양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연구들을 지지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아지고, 낮아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를 높이는 결과와 일치한다[54].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추며,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한다[55].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능동적양식이 낮아지고 능동적양식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는 결과를 지지한다[56].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양식의 하위요인 중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적 양식이 매개한다고 나타났다[57].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와 거부민감성 간의 심층적인 모형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요소 간의 심층적인 모형도 검증하였다. 먼저, 거부민감성 중 거부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추구적양식을 거쳐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거부불안이 낮아질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지지추구적 양식이 높아지며, 지지추구적양식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 능동적 양식도 유사한 모형을 보여주었는데, 거부불안이 낮아질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능동적 양식이 높아지며, 능동적양식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 중 수용기대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수용기대가 높아

질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능동적 양식이 높아지며, 능동적양식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의 수용기대가 거부불안과 반대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에서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또한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순서로 대인관계문제에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거부민감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민감성을 측정하여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거부민감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정서를 인식하거나 정서조절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대인관계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므로, 상담이나 교육으로 바꾸기 어렵고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가능한 정서를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는 것은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에서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정서의 인식을 도와주고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 능동적 양식이나 지지추구적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친 뒤에, 정서인식명확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관계에서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매개효과를 보인 반면에 회피분산적 양식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문제가 더욱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58].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

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다는 선행연구들[58,59]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은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조절 양식이 회피분산적양식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기대도 거부불안과 동일하게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회피분산적 양식은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용기대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대한 척도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60]. 수용기대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부적 인 상관관계와 영향 정도를 나타낸 선행연구[61]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양식이라 볼 수 있는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과는 매개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회피분산적 양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피분산적 양식은 다른 양식과 달리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양식이므로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피분산적 양식보다는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본인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정서조절양식의 이해가 어렵다면, 긍정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을 통해 변화를 촉진시켜 준다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성장발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법을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면밀하게 상태를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가지 변수 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연구로 3가지 변수에 추가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ric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mpany, 1963.
- [2] I. J. Jin,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 237-250,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37>
- [3] K. H. Han,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12.
- [4] S. M. Kwon,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Seoul: hakjisa, 1997.
- [5] Y. J. Cho,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Interpersonal Affec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4), 1671-1694, 2021.
DOI: <https://doi.org/10.23844/kjcp.2021.11.33.4.1671>
- [6] R. M. Ryan & E. L. Deci,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 3-33, 2002.
- [7] K. A. Lee, H. H. Chung.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2), pp. 213-226, 1999.
- [8] J. Y. Kim, T. H. Sung, J. H. Kim, M. Y. Shin, "The Moderating Effect of Attentional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1), 21-37, 201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9207920_The_Moderating_Effect_of_Attentional_Control_in_the_Relationship_between_Rejection_Sensitivity_and_Interpersonal_Problems
- [9] Statistics Korea, Youth Counseling Support Statu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00300025 (accessed July. 30, 2022)
- [10]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Design and study of support project for overcoming psychological crisis and charact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 Design of support base for psychological strength and character development for nurturing future talents (Homo Futurus) in higher education, Seoul: kyungsung, 2018.
- [11]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ear, G. Ureno et al.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6.6.885>

- [12] J. I. Hong, G. B. Han, "An Impact of Adolescent Parental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Roles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367-389, 2015.
- [13] Y. S. Kim. *Analysis of the effect of self-ident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 and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level of social withdrawal on it*, Ph.D dissertation, Daejin Univcrsity, 2019.
- [14] H. W. Lee, D. M. Yeum, M. H. Le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2), 297-433, 2014.
- [15] K. O. Park, K. H. Park,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nsity,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Interpersonal Relations", *Catholic Journal of Social Science*, 23, 77-95, 2007.
- [16] H. I. Jeong, I. S. Oh,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2), 259-277, 2016. DOI: <https://doi.org/10.35151/kvci.2016.24.2.013>
- [17] J. Metcalfe, W. Mischel,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 1999.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106.1.3>
- [18] S. R. Levy, O. Ayduk & G. Downey,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2001. DOI: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5130157.003.0010>
- [19] S. Feldman, G. Downey,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1994.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20] G. Downey,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6.1327>
- [21] H. W. Kim, Y. G. Park, Y. K. Kim,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3), 779-806, 2020. DOI: <https://doi.org/10.15753/aje.2020.09.21.3.779>
- [22] J. Y. Min, *The 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 Negative Emotional Intens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Moderation effect of Attentional Contro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12.
- [23] A. Solomon, & D. A. Haaga,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3), 243-252, 1994. DOI: <http://dx.doi.org/10.1007/BF02229211>
- [24] D. A. Clark, A. T. Beck & G. K. Brown, "Sociotropy, autonomy, and life event perceptions in dysphoric and nondysphoric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6), 635-652, 1992. DOI: <http://dx.doi.org/10.1007/BF01175404>
- [25] E. M. Kwon, M. S. Shin, E. J. Kim,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phobia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8(3), 627-642, 2009.
- [26] P. Salovey, J. D. Mayer, S. L. Goldman, C. Turvey & T.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 125-15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DOI: <https://doi.org/10.1037/10182-006>
- [27] J. H.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f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4(1), 37-49, 2011.
- [28] Y. J. Song, Y. J. Chae, S. B. Lee, Y.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CA)*, 22(2), 159-184, 2021. DOI: <http://doi.org/10.15703/kic.22.2.202104.159>
- [29] Salovey, P., & Grewal, D,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6), 281-285, 2005. DOI: <http://dx.doi.org/10.1111/j.0963-7214.2005.00381.x>
- [30] Flack, W. F., Jr., Cavallaro, L. A., Laird, J. D., & Miller, D. R, "Accurate encoding and decod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in schizophrenia", *Psychiatry*, 60, 222-235, 1997. DOI: <http://dx.doi.org/10.1080/00332747.1997.11024798>
- [31] H. S. Shim, J. H. Wang,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1), 163-175, 2001.
- [32]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21(6), 286-295,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6.286>
- [33] E. H. Lee, *Influence of self-silencing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34] Whiffen, V. E., Foot, M. L., & Thompson, J. M.,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2007
DOI: <http://dx.doi.org/10.1177/0265407507084813>
- [35] H. G. Kwon, J. H. Jang, "Impacts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acceptance on Counseling outcomes in Group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4), 811-831, 2011.
- [36] Gross, J.J.,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ation, future", *Cognition & Emotion*, 13, 551-573, 1999.
DOI: <http://dx.doi.org/10.1080/026999399379186>
- [37] Westen, D.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62, 641-667,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94.tb00312.x>
- [38] Gottman, J. M., Mettetal, G,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J. M. Gottman & J. G. Parker (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192-237, 1986.
- [39] Impett, E. A., Gable, S. L., Peplau, L. A.,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27-344,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9.3.327>
- [40] Rusbult, C. E., Bissonnette, V. L., Arriaga, X. B., Cox, C. L., Accommodation processes during the early years of marriage, 1998.
DOI: <http://dx.doi.org/10.1017/CBO9780511527814.005>
- [41] Metcalfe, J., Mischel, W.,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 1999.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106.1.3>
- [42] McFarland, C., Buehler, R., "Negative affective states and the motivated retrieval of positive life events: The role of affect acknowle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200-214, 1997.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3.1.200>
- [43] S. Y. Kim,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s on Psychopathology*,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44] Mayer, J. D., Stevens, A. A.,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3), 351-373, 1994.
DOI: <http://dx.doi.org/10.1006/jrpe.1994.1025>
- [45] H. R. Park,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speech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4), 246-254, 201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46>
- [46] B. D. Lee, *Adult attachment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ribution styl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47] E. J. Shin, M. J. Jeong, S. H. Lee, "A Study on Response Trends in responding rating questions", *Statistical research*, 13(1), 48-65, 2008.
- [48] S. B. Yo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ypes and antecedents of experienced emotions on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49] J. O. L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2003.
- [50]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Villaseñor, V. S.,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6.6.885>
- [51] H. S. Hwang, Y. R. Cho, J. H. Kwon, E. Y. Park, Y. H. Kim., Y. G. Jin,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2002.
- [52]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Kindle Edition, 193, 2013.
- [53] S. H. Hong, Malik, M. L., M. K. Lee,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2003.
DOI: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54] A. R. Kim, D. Y. Yang, S. M. Che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 Mediated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Emotional Clar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3(2), 745-769, 2022.
- [55] S. H. Jeong, N. M.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and Emotional Cla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5), 137-159, 2018.
DOI: <https://doi.org/10.15703/kjc.19.5.201810.137>
- [56] S. H. Lee, *The Effect of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Clarity*,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2020.
- [57] J.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in the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stress*,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58] H. I. Jung, I. S. Oh,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2), 259-277, 2016.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6.24.2.013>
- [59] M. S. Lee, P. K.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1), 63-75, 2012.
- [60] H. N. Choi, M. A. Seo,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23-60, 2019.
DOI: <https://dx.doi.org/10.31625/issdoi.2019.22.1.23>
- [61] J. H. Lee, J.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66-79, 2018.
DOI: <http://dx.doi.org/10.15842/kjcp.2018.37.1.006>

임 애 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